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Sang-Min Shin¹, Ha-Kyun Kim²

신상민¹, 김하균²

¹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ystems, Pukyong National Univ., Korea, jcsmshin@gmail.com

²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Pukyong National Univ., Korea, kimhk@pknu.ac.kr

Corresponding author: HaKyun Kim

Abstract: As seniors entrepreneurship becomes economically and socially important, studies on the factors that affect seni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are increasing. In Korea, ahead of the super-aged society, securing social and economic engines through seniors is an important time.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male and female seniors aged 40 years or ol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335 responses, 323 responses, excluding insincere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tools, SPSS 23.0 and Smart PLS 3.0. In this study, the hypotheses, that the senior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efficacy, were adopted. And, hypothesis, that entrepreneurial effic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adopt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e useful in increasing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uggests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necessary for seniors and that seniors with weak personal networks need to activate a system that provides an environment in the public domain.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activities of seniors will be continued in more specifically and actively to solve the problem of super-aged aging in Korea.

Keywords: Entrepreneurship, 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요약: 시니어의 창업이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시니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는 시니어를 통한 사회, 경제의 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0세 이상의 남녀 시니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335부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23부를 통계분석 도구인 SPSS 23.0과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Received: January 19, 2023; 1st Review Result: March 06, 2023; 2nd Review Result: April 02, 2023
Accepted: April 30, 2023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니어에게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필요하며 개인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시니어에게는 공적영역에서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니어의 창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개인의 환경특성,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1. 서론

국가통계포탈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고령비율 16.5%)이며, 2025년에 초고령 사회(고령비율 20.6%)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령화는 노동 투입과 자본투입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들이 있고, 정년퇴직(9.6%)보다 많은 비자발적 조기퇴직(41.9%)의 증가[2] 추세를 감안하면 비자발적 조기 퇴직의 활용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구고령화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3].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만 40세 이상 시니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창업 관련 연구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4].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니어의 창업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어[5] 그 연구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일반적 시니어를 대상으로 첫째, 기업가 정신, 개인의 환경특성, 창업효능감, 창업의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한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셋째,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6]이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 기업가적 마인드로 정의하고 있다[7][8].

2.1.1 혁신성(Innovativeness)

혁신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대해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시도하는 성향을 말한다[9]. 시니어 창업자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혁신성은 창업자가 혁신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효과가 발휘되고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창업가 특성에서 혁신성은 실질적 실천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10].

2.1.2 진취성(Proactiveness)

진취성이란 과거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역량[11]으로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여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진취성이 높은 시니어 창업자들은 자신의 가진 경험과 재능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12].

2.1.3 위험 감수성(Risk-Taking)

위험이라는 개념은 창업 과정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위험은 창업과정에서 무모한 도전의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측 가능한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과 준비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13]. 시니어 창업자들은 이미 일정한 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12]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14].

2.2 개인의 환경특성(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창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 요인으로는 창업과 관련하여 (1)지원, 동기부여, (2)사례와 역할 모델, (3)전문적 조언자 상담, (4)기회, 정보, 자원 등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지지세력의 존재이다[15].

2.2.1 창업멘토(Entrepreneurial Mentor)

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환경요인은 정서적, 기술적으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세력으로서 창업멘토의 존재 여부이다[16]. 예비 창업가들에게 멘토링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다[17]. 이것은 시니어 창업자들이 창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멘토의 도움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2.2 개인 네트워크(Personal Network)

성공적 역할 모델(Successful role models)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 성공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 자본이다. 특히, 성공적 역할 모델의 영향력이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18]. 역할 모델은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고 있는 창업에 성공한 지인,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창업주, 친구, 유명한 기업가, 가족, 친지 등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창업은 혼자 하기 어려우며 창업을 위한 행위 자체도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하우 전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10].

2.3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Efficacy)

창업효능감이란 최근 창업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로서,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19]. 시니어 창업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전의 경험과 지식, 사회적 자본, 높은 수준의 기술과 관리능력자금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다[20]. 동시에 창업은 불확실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상황을, 자신의 생각을 펼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으로 창업 성공 가능성에 양(+)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1]

2.4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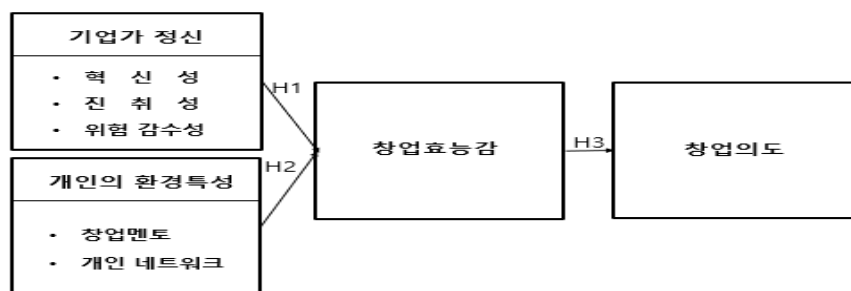
창업의도는 자신의 사업을 갖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서 조직 고용에 반대 개념이며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이다[21]. 시니어의 창업의도는 경제적인 이유와 새로운 도전 및 성취감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하며 창업자의 개인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창업을 행동에 옮기려면 창업의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즉, 창업의도는 미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19].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시니어들이 창업 실행의 출발점인 창업의도에 주목하여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을 통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22]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3.1.2 연구 가설

3.1.2.1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대한 가설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23], 기업가 정신이 창업

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8].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선행연구[7]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H1-1 혁신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H1-2 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H1-3 위험 감수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3.1.2.2 시니어 개인의 환경특성과 창업효능감에 대한 가설

개인의 환경요인은 사회적 지원 세력인 창업멘토와 개인의 네트워크 즉, 성공적 역할 모델로 구분하였다[18].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가에게 정서적,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세력의 존재와 성공적 역할 모델의 존재는 창업효능감을 높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16]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개인의 환경특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H2-1 창업멘토는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H2-2 개인 네트워크는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3.1.2.3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대한 가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1], 창업효능감이 많은 사람은 창업하려는 의도 또는 의지가 높다[24]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설정된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변수	조작적 정의		설문 문항	선행연구
기업가 정신	혁신성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 추구 성향	나는 창조적인 행동(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다.	[8] [11]
	진취성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루려는 성향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다. 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나는 보수적이기 보다는 개혁적 이라고 생각한다.	[8] [11]
	위험 감수성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성향	나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나는 불확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나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	[8] [11]
개인	창	창업에	내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과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6] [18]

의 환경 요인	업 멘 토	정서적,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의 존재 여부	사람이 있다. 내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과 관련하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창업을 한다면 준비 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과 관련해서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좋을 것이다.	[24]
	개인 네트 워크	성공적 역할 모델의 존재 여부	나의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창업을 한다면 잘 아는 사람 중에 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다. 나의 가까운 사람 중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주변에 본보기가 될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11] [13]
창업 효능 감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창업할 때 자금관리를 잘 할 자신이 있다.	[14]
창업 의도	창업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이며 향후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		나는 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구축하는 것을 꿈꾼다. 나의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창업할 의향이 있다.	[25]

3.3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설계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만 40세 이상의 일반적 시니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설계

[Table 2] Collection of Data and Design of Samples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모집단	만 40세 이상의 일반적 시니어 (남녀)	조사범위	전국 조사
표본특성	부산권(51%), 수도권(30.3%), 기타(18.7%)	조사기간	2022년 11월 23일~12월 03일(11일)
추출방법	판단표본추출법(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	회수 설문지: 335부(100%)
조사방법	자기기입방식(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설문지)	표본추출	유효 설문지: 323부(96.4%)

3.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 도구인 SPSS 23.0과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및 결과

4.1 일반적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남자가 80.8%이며, 40대가 43.9%, 50대가 38.4%로 4~50대가 82.3%를 차지하였다. 수도권(30.3%)과 부산권(51%)의 응답자가 81.3%으로서 대도시 중심의 응답자가 다수이나 조사자의 특성상 수도권보다 부산권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4.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신뢰도와 집중 타당성 분석결과는 C.R값은 0.7이상, 요인적재 값 0.6이상, AVE 0.5이상, Cronbach's α 0.7이상으로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표 3] 신뢰도 및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

[Table 3] Analysis Result of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변수	요인적재 값	AVE(0.5이상)	C. R(0.7이상)	Cronbach' α
혁신성	0.765	0.589	0.851	0.769
	0.745			
	0.757			
	0.801			
진취성	0.763	0.538	0.823	0.718
	0.709			
	0.748			
	0.713			
위험 감수성	0.754	0.559	0.835	0.743
	0.717			
	0.746			
	0.773			
창업멘토	0.729	0.535	0.822	0.712
	0.729			
	0.750			
	0.718			
개인 네트워크	0.805	0.581	0.847	0.760
	0.733			
	0.755			
	0.755			
창업효능감	0.885	0.698	0.902	0.855
	0.861			
	0.814			
	0.778			
창업의도	0.824	0.744	0.921	0.886
	0.890			
	0.901			
	0.833			

4.3 상관관계 분석

판별 타당성은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의 종의 값과 횡의 값보다 크므로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표 4]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Table 4] Analysis Result of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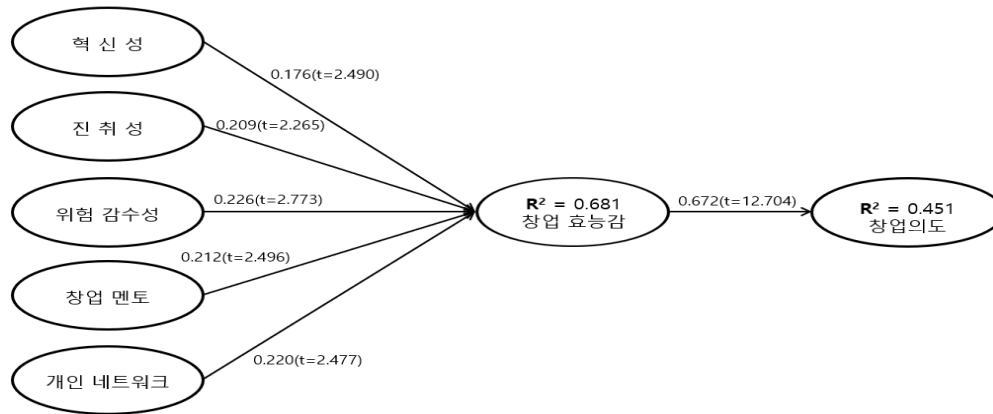
변수	AVE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멘토	개인네트워크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혁신성	0.589	0.767						
진취성	0.538	0.560	0.734					
위험감수성	0.559	0.471	0.646	0.748				
창업멘토	0.535	0.509	0.496	0.440	0.732			
개인네트워크	0.581	0.540	0.572	0.392	0.698	0.762		
창업효능감	0.698	0.626	0.684	0.623	0.658	0.671	0.836	
창업의도	0.744	0.546	0.577	0.517	0.519	0.596	0.672	0.863

주: 대각선의 볼드체는 AVE의 제곱근 값

4.4 구조모형의 검증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와 결정계수(R²)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결정계수(R²)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낸다. R²값이 0.26 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편이다[26].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Fig. 2] Analysis Result of Structural Model

4.5 가설검정결과

부트스트래핑을 기반으로 비모수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총 10,000회의 리샘플링을 거쳐 표준화계수의 유의성을 분석하여 도출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첫째,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 중 혁신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beta=0.176$, $t=2.490$, $p<0.05$)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 중 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beta=0.209$, $t=2.265$, $p<0.05$)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 중 위험 감수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beta=0.226$, $t=2.773$, $p<0.01$)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행연구[12]와 일치한다.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첫째, 개인의 환경특성 중 창업멘토는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beta=0.212$, $t=2.496$, $p<0.05$)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인의 환경특성 중 개인 네트워크는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beta=0.220$, $t=2.477$, $p<0.05$)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행연구[18] 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H3는 채택되었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미($\beta=0.672$, $t=12.704$, $p<0.001$)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행연구[1]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요약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 Results

가 설 경 로	표준화계수(β)	t-값	p-값	채택 유무
H1-1: 혁신성 → 창업효능감	0.176	2.490	0.013*	채택
H1-2: 진취성 → 창업효능감	0.209	2.265	0.024*	채택
H1-3: 위험 감수성 → 창업효능감	0.226	2.773	0.006**	채택
H2-1: 창업멘토 → 창업효능감	0.212	2.496	0.013*	채택
H2-2: 개인 네트워크 → 창업효능감	0.220	2.477	0.013*	채택
H3 : 창업효능감 → 창업의도	0.672	12.704	0.000***	채택
$p < 0.05^*$ $p < 0.01^{**}$ $p < 0.001^{***}$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과 개인의 환경특성(창업멘토, 개인 네트워크)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가설 H1과 H2는 채택되었다. 둘째,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12][18]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위험 감수성($\beta=0.226$), 개인 네트워크($\beta=0.220$), 창업멘토($\beta=0.212$), 진취성($\beta=0.209$), 혁신성($\beta=0.176$)의 순이다. 세분하면, 시니어의 기업가 정신 중에서는 위험 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의 순으로 영향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환경특성 중에는 개인 네트워크가 창업멘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하다는 것과 둘째, 시니어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도 유의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시니어 창업을 위해서 개인의 환경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네트워크가 취약한 시니어에게는 공적영역에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니어들에게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2 연구의 한계점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일반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 시니어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고 창업행동이나 성과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창업의지만을 다룬 점 및 측정 도구나 자료 수집 방법 등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성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동일방법편의(CMB)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향후에는 적극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창업행동과 성과로 내생변수를 확장한 연구 및 CMB의 문제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노인 빈곤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을 통한 시니어의 고용창출은 시니어들이 경제 성장률 상승에 기여하고 경제력 확보로 노인 빈곤 문제와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H. Choi, S. S. Cho, Study on Factors for Efficacy and Purpose of Starting Business after Middle Aged Workers' Retir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 Vol.14, No.7, pp.226-24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226>

- [2] J. H. Park, Delayed Retirement, Prepare for Life Cycle Balance Loss, Mirae Asset Investment & Pension Center, (2022)
Available from: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6695005470.pdf>
- [3] B. K. Ahn, K. H. Kim, S. W. Ryuk,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Growth, BOK Economic Analysis, (2017), Vol.23, No.4, pp.1-33.
- [4] Y. T. Kim, C. M. Heo,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21), Vol.16, No.2, pp.109-121.
DOI: 10.16972/apjbve.16.2.202104.109
- [5] S. W. Kim, J. J. Lee, The Analysis Senior Entrepreneurial Agenda and Acceptability in Korea, Spring Conference,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2021)
- [6] S. H.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Start-up Competency and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Hoseo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5)
- [7] J. H. Kang, D. W. Yang,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 Vol.17, No.1, pp.493-50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493>
- [8] D. Miller,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1983), Vol.29, No.7, pp.770-791.
Available from: <http://www.jstor.org/stable/2630968>
- [9] J. G. Kim, D. W. Yang,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 Vol.16, No.4, pp.477-48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4.477>
- [10] J. H. Jung, A Study on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start-up and management performance, Konku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 [11] J. H. Kang,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Hoseo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5)
- [12] M. Markey, Celebrate the Baby Boome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2016), Vol.15, No.3, pp.40-44.
- [13] H. Frederick, D. F. Kuratko, R. M. Hodgetts,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Thomson, (2007)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5328732>
- [14] S. Y. Park, A Structural Modeling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EO's Entrepreneurship in Venture Business, the Empowerment of the Memb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oseo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3)
- [15] K. Manning, S. Bieley, D. Norbun, Developing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89), Vol.14, No.1, pp.67-76.
DOI: <https://doi.org/10.1177/104225878901400106>
- [16] D. R. Gnyawali, D. S. Fogel,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94), Vol.18, No.4, pp.43-62.
DOI: <https://doi.org/10.1177/104225879401800403>
- [17]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9000000>, Dec 25 (2023)
- [18] B. S.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2004), Vol.17, No.2, pp.89-110.
UCI: I410-ECN-0102-2009-320-002292863
- [19] R. D. Hisrich, M. P. Peters, D. A. Shepherd,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NY: McGraw Hill, (2012)

- [20] J. Stypinska, A. Franke, J. Myrczik, Senior Entrepreneurship: The Unrevealed Driver for Social Innovation, *Frontiers in Sociology*, (2019), Vol.4, No.30.
DOI: <https://doi.org/10.3389/fsoc.2019.00030>
- [21] A. Davila, G. Foster, N. Jia, Building sustainable high-growth startup companies: Management systems as an accelerator,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010), Vol.52, No.3, pp.79-105.
DOI: <https://doi.org/10.1525/cm.2010.52.3.79>
- [22] A. Newman, M. Obschonka, S. Schwarz, M. Cohen, I. Niels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9), Vol.110, Part B, pp.403-419.
DOI: <https://doi.org/10.1016/j.jvb.2018.05.012>
- [23] A. Maritz, C. Brown, Enhanc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rough voca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 Vol.65, No.4, pp.543-559.
DOI: <http://dx.doi.org/10.1080/13636820.2013.853685>
- [24] D. K. Hsu, K. Burmeister-Lamp, S. A. Simmons, Maw-Der Foo, M. C. Hong, J. D. Pipes, I know I can, but I don't fit: Perceived fit,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9), Vol.34, No.2, pp.311-326.
DOI: <https://doi.org/10.1016/j.jbusvent.2018.08.004>
- [25] A. C. Cooper, W. C. Dunkelberg, Entrepreneurial Research: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2017), Vol.11, No.3, pp.11-24.
DOI: <https://doi.org/10.1177/104225878701100301>
- [26]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2n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